타이완 소설「道」에 나타난 이중 억압 기제와 식민지인의 자기 정체성 연구

신민영*

〈차 례〉

1. 서론
2. '일본인'이라는 신념 – 나는 '일본인'이라고 믿는다 –
3. '일본정신'이라는 정신적 계보 – 나는 언젠가는 '일본인'이 될 수 있다 –
4. 聖戰을 통한 새로운 피의 수혈 – 나는 죽어서 '일본인'이 될 수 있다 –
5. 결론

【국문초록】

타이완 작가 천훠취엔은 1943년 7월『文藝臺灣』을 통해 중편소설「道」를 발표했다. 이 작품은 저항과 협력이라는 이항의 구도 아래에서는 설명해낼 수 없는 지점을 포함하고 있다. 주인공 세이난/칭난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인으로, 출생과 동시에 일본 '국민'으로 편입된 세대이지만, <하나의 '국민'>이라는 구호 아래 감추어진 일등 국민과 이등 국민의 위계에 의해 고통 받던 비극적인 시대의 인물이다. 그는 어떻게든 일등 국민, 완전한 '일본인'이 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매번 실패와 맞닥뜨렸다. 반드시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비교문학협동과정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일본인’이 되기>를 성공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이중 억압의 기제가 동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이난/칭난은 순간순간 욕망의 불가피성과 욕망의 불가능성 사이의 아포리아를 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단절을 뛰어넘기 위한 환상기제를 찾는 데만 몰두함으로써 스스로 자기기만을 선택했다. 그러나 자신이 찾아낸 환상기제 - ‘일본인’이라는 신념, ‘일본정신’이 줄줄이 도약에 실패하자, 결국에는 ‘본도인’의 피를 다 쏟아내고 새로운 피를 수혈 받기 위한 방법으로 죽음을 동경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분명 당시 시대적 상황이 강요하는 비극이었고, 그 아래에서 세이난/칭난은 힘겹게 발버둥을 쳤다. 그렇지만 세이난/칭난의 선택은 중요한 전제 - <‘일본인’=국민=사람>이라는 “공리(空理)”에 대한 회의와 비판적 성찰 없이 주어진 현실 논리를 추수하는 것이었다. 이 소설은 왜 ‘일본인’만이 국민이고 사람인 것인지 따져 묻지 않는다. 이 질문을 생략한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이 “공리(空理)”를 회의하는 순간 저항의 지점들이 드러난다. 전제를 마땅히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정은 언제라도 현실 논리에 함몰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친일 문학이라고 부르는 작품들이 갖는 현재성일 것이다.

주제어: 황민문학, 「道」, 이중 억압, 식민지의 정체성, 일본정신, 지원병

1. 서론

일본 제국의 식민지 국가들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

로 불시에 해방 공간에 놓이게 되었다. 문면 그대로 “불시에” 직접적·물리적 지배가 “공식적으로” 종식되면서 그간의 해방을 위한 모든 요구들은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집중되었고, 지배 기간 동안 식민지에서 일어났던 모든 갈등과 반목, 협력과 타협의 양태들은 충분한 논의를 생략한 채 수면 아래로 잠기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의 냉전 체제와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전지구적인 신자유주의의 움직임, 중·미 간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냉랭한 대립각의 분위기로 이어지는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 위에서도 식민기간의 공동체의 역사 경험과 기억들은 불편한(?) 소리를 내며 현재에 참여한다. 일본의 보수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를 예방(禮訪)할 때마다 한국의 언론은 앞 다투어 비판과 유감의 목소리를 낸다. 반면, 한반도보다도 15년 먼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타이완의 거리는 흡사 일본의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일본어로 씌여진 간판과 일본 기업계 상점들이 즐비하다. 이는 마치 일본 제국의 대표적인 두 식민지 - 한반도와 타이완에서의 식민 지배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반응을 はんにち(反日)와 しんにち(親日)라는 이분법적 대립으로 바라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방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타이완의 반응이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두 식민지 모두에서 저항과 협력의 광범위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타이완과 한국 사이의 이러한 차이가 식민 지배 이전(precolonial) 그리고 식민지 이후의(postcolonial) 역사들과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천훠취엔(陳火泉)의 중편소설 「道」는 1943년 7월 『문예대만(文藝臺灣)』 제6권 3호에 발표된 작품이다. 400자 원고지 63매, 글자 수만 6만 5천 자가 넘는 양이었지만 소설 전문이 한 회(回)에 다 실렸다. 이런 분량은 당시 편집후기에도

밝혔듯이 상당히 파격적인 대우였다.[1] 발표 당시 이 작품은 내지 출신의 평자들(하마다 하야오濱田隼雄, 니시카와 미츠루 西川滿)에 의해 "황민문학(皇民文學)의 결정(結晶)"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타이완에서 『光復前臺灣文學集』이 편집될 때에 이 작품은 선집에서 제외되었다.(반면, 마찬가지로 황민문학으로 평가받았던 왕창슝(王昶雄)의 「奔流」는 선집 제8권 『鬪鷄』에 수록되었다) 선집 각 권의 머리말에는 편집자들의 출판 취지와 편집 의도를 밝혀두었는데, "선집을 만드는 과정에는 좋고 나쁨의 평가(褒貶)가 들어가 있으며, 황민화의 의미가 지나치게 농후한 어용 작품은 수록하지 않음으로써 무언의 관용적인 비판을 은밀히 밝혀두었다"[2]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편집 당시 예스타오葉石濤, 종쟈오쩡鍾肇政 등의 편집자들은 천훠취엔의 작품 「道」를 "황민화에 저항하는 타이완인의 심리적 투쟁의 기록是一个台湾人抗拒皇民化的心理挣扎的記录"[3]이며, "학정과 폭력 아래에 놓여 있는 고통으로 가득 찬 항의문학"[4]으로 판단하여 수록하려고 하였으나[5], 다른 편집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선집에는 실지 못했다고 한다.[6]

---

1) 廖秀娟, 「陳化泉「道」論 - 語りらみる作品の<批判性> -, 『台湾日本語文學報』 25, 2009. 6, p. 108

2) 張恒豪・林梵・羊子喬, 「出版宗旨及編輯体例」, 鍾肇政・葉石濤 編, 『光夏前台湾文學集』, 小說卷全八卷, 1979 : "寓褒貶于編選之中, 凡是皇民化意味甚濃的御用作品, 以不選取來隱示我們无言的、寬容的批判"

3) 葉石濤, 『臺灣文學史綱』, 文學界雜誌社, 1987, p. 66

4) 鍾肇政, 「日據時代臺灣文學的盲點-對『皇民文學』的一個考察」, 『聯合報』, 1979, 6.

5) 이들보다 앞서 천샤오엔 역시 "천훠취엔이 예리한 풍자적 필치로 당시 타이완인의 황민화에 대한 고민과 모순, 갈등을 그려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곧 이어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道」를 일제에 아부하는(媚日)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고 썼다. 陳少廷, 『臺灣新文學運動簡史』, 聯經出版社, 1977, pp. 151-152

6) 「道」는 집필 당시 일본어로 씌어졌던 작품으로 천훠취엔이 직접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道」의 중역본은 『光復前臺灣文學集』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츄위즈(褚昱志) 역시 「道」가 일시동인(一視同人)의 허상에 갇힌 타이완인들의 억울한 심정과 고통을 묘사하는 한편, 타이완인이 황민이 되는 진정한 길은 죽는 길(死路)밖에 없다는 사실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한다.[7] 그의 논의는 천훠취엔이 회고서[8]에서 밝힌 창작 동기와 술회(述懷)에 상당 부분 기대어 있다. 이에 반해, 타루미 치에(垂水千惠)는 천훠취엔이 전시(戰時)에 참가한 좌담회, 하이쿠(俳句) 그리고 동인지에 발표한 작품들을 근거로 들어, 그가 일본이 좋아하는 모범적인 황민의 상(像)을 그렸으며, 작품을 작가로서의 명성과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분명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작품이 발표된 2년 후에, 천훠취엔이 실제로 정식 기술자로 승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가 일본 식민 당국자들의 도덕적 죄의식(moral masochism)을 자극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애초에 저항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9] 결론짓는다.

이처럼 「道」를 둘러싼 그 동안의 논의는 작품의 진의나 의도를 작가의 대외적 활동이나 경력과 연결 지어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저항문학이냐 황민문학이냐를 논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 논쟁에서 비껴나 텍스트 내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자 한다. 실제 식민지인의 삶은 저항과 협력이라는 두 항이 모순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동시적으로 양립하거나 두 항만으로는 설명해낼

종쨔오쩡이 부(副)편집인으로 있던 『民衆日報』에 1979년 7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연재되었다.

7) 褚昱志, 「是皇民文學? 還是抗議文學(二) - 論陳火泉的<道>」, 『臺灣觀光學報』 5, 2008.

8) 陳火泉, 「被壓迫靈魂的昇華」, 『抗戰時期文學回憶錄」, 文訊月刊雜誌社, 1987.: 츄위즈는 「道」의 내용이 이 회고서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점을 들어 이 작품을 자서전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9) 垂水千惠, 「日本統治と皇民文學 - 陳火泉の場合」, 『台湾の日本語文學』, 五柳書院, 1995, pp. 75-101

수 없는 착종된 지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인의 정체성은 정신분열적이고 신경쇠약적인 형태로 발견되고는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인공 세이난/칭난(青楠)[10]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의 행동과 사유를 쫓아감으로써 식민지인의 불안하고 곤궁한 정체성 획득의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일본인'이라는 신념

- 나는 '일본인'이라고 믿는다 -

작품은 전매국의 장뇌[11]제조시험소(製腦試驗所)에서 일하는 타이완인 세이난/칭난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그는 읍내에서 3리 정도 떨어진 산중의 제뇌지(製腦地)에서 장뇌를 증류하는 뇌조(腦竈: 아궁이 혹은 가마)의 개량에 골몰한 끝에, 마침내 동일한 양의 연료를 사용하여 기존 뇌조보다 8%의 증산(增産) 효과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였다. 뇌조 개량에 성공한 날, 세이난/칭난은 자축할 요량으로 산에서 내려와 리화루(麗花樓)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를 즈음에 일행들도 자리를 뜨고, 옆에서 술시중을 들던 여자도 방을 나가는 바람에 그는 방에 혼자 남게 되었다. 그가 술기운에 "이봐! 여기 아무도 없어?" 하며 밖에 대고 냅다 고함을 지르자, 반응할 새도 없이 어떤 건장한 남자가 방 안

10) 주인공 青楠은 <'일본인'이 되기>를 욕망하지만 매번 욕망의 불모성을 확인하는 식민지인이다. 주인공이 놓인 곤경과 불안한 정체성을 표시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일본식 독음과 현재 타이완 표준어 독음을 "/"을 사용하여 병기하였다.

11) 樟腦(C10H16O): 독특한 향기가 있는 무색의 고체로,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상온에서 승화하기 쉽다. 나프탈렌(C10H8)과 함께 방충제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다.

으로 뛰어들더니 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주먹질을 해대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날벼락 같은 상황에서 세이난/칭난의 반응은 "천천히 옷깃을 여미었다. 그리고 엉금엉금 기다시피해서 다다미 위에 꿇어 앉아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불만이 있다면 충분히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자세를 바르게"[12] 하는 것이었다. 후에,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접대부의 말에 사내가 오해를 하여 달려들었음이 밝혀지고 나서도 세이난/칭난의 반응은 몸을 한껏 움츠린 공손한 자세이다.

> "아휴, 뭘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마음도 완전히 다 풀렸습니다. 백 년 동안의 사랑에서 깨어난 기분인데요. 뭘, 하하하."(p.278)

그러나 작가는 이 반응들을 사이에 두고 "하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는 여간해선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말은 간신히 참았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어쩌지 못했다"를 반복한다. 그의 웃음 역시 "어떻게 보면 쓴웃음을 짓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어찌 보면 전혀 웃는 것 같지 않기도 했다"로 설명되고 있다. 이것들은 단순히 그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름을 보여주기 위한 작가의 기술적(descriptive) 전략이었을까?

황당한 몸싸움으로 일면식을 한 이들의 만남은 술자리로 이어졌는데, 술자리에서의 주된 화제는 '일본정신'이었다. 사합(沙盒)에 든 술을 거의 다 비우고 난 후, 취기가 오른 사내가 "(…) 일본정신은 바로 ……" 하며 꼬인 혀로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자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거!"라고 잘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세이난/칭난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일본정신'은 말 그대로 핑계를 대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고 일본 천황을 위해 죽는다는 뜻

12) 陳火泉, 「道」, 송승석 편역, 『식민주의, 저항에서 협력으로』, 도서출판 역락, 2006, p. 278 (이하는 인용문 옆에 쪽수만 표기하였다)

이다. 게다가 성전(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도 징집되지 못했다는 울분과 자책감을 술로 달래고 있는 사내를 향해,

> "날 생각해봐. 자네는 머지않아 징집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라도 있지. 난 어떠냐고? 기대하고 싶어도 기대조차 할 수 없고 아무리 원해도 안 된단 말이지."(p. 284)

라며 한탄하는 사람도 역시 세이난/칭난이다. 그의 말은 그저 일본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지 않다. 일본 '국민'이지만 타이완섬 출신의 본도인[13]이기 때문에 성전(聖戰?)에 참전할 수 없다는 그의 자조 섞인 넋두리는 상대를 염두에 둔 반응이 아니다. 특히, 작품 후반부에서 '육군특별지원병'에 자원하는 세이난/칭난의 행동과 연결해서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는 내지 출신의 일본인인 사내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에도 시대의 하이쿠 시인인 바쇼(芭蕉)의 시를 읊조릴 만큼 일본문화에 소양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성전에 부름을 받지는 못하지만 스스로도 "자신이 탁월한 일본인이라고 믿"(p. 317)는 인물이다. 또 상관인 히로다(廣田) 계장의 신임을 얻어 직위는 높지 않지만 시험소의 중요한 업무 하나를 도맡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난/칭난은 유카타(浴衣)를 입고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하는 사내를 향해 따져 묻는 말 한 마디조차 하지 못한다. 그저 "끓어오르는 분노"가 수그러들기를 기다릴 뿐이다. 오해에서 비롯된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사내에게 역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불쾌한 기색마저 내비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것을 비단 세이난/칭난의 소심하고 비겁한 개인의 성격

13) '본도인'이란 일본 열도 출신의 '내지인'과 구분하여 타이완섬 출신의 식민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적 결함으로만 귀결시키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사내와의 술자리 이후 세이난/칭난이 맞닥뜨린 또 하나의 폭력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이난/칭난이 뇌조 개량에 성공한 이듬해 전매국 과장의 이·취임식 연회가 있던 날이었다. 연회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자 마작판을 벌이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모으면서 일이 벌어졌다. 세이난/칭난은 부족한 한 명을 채우기 위해 아직도 술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밍그적대는 다케다를 재차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케다가 버럭 화를 내며 "아이! 이 새끼, 정말 되게 성가시게 구네. 야, 새끼야! 너 뭐야! 네가 뭔데 자꾸 성가시게 구는 거야!"(p. 313) 라는 말과 함께 서슬 퍼런 기세로 와락 세이난/칭난에게 덤벼들었다. 다케다가 크고 건장한 몸집으로 덮치듯이 달려들 때, 세이난/칭난은 "본능적으로 두어 걸음 물러섰다."(p. 313) 다케다를 말리는 동료들 틈에서 그가 느낀 것은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그러나 분명한 공포였다.

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세이난/칭난의 머릿속에는 '왜 나를 때리려고 했을까', '내가 같은 내지인이었더라도 상대는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들이 끈질기게 맴돌았다. 이와 함께 내지인으로부터 그가 당한 부당한 멸시와 모욕적인 대우들이 차례차례 떠오르면서, 세이난/칭난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놓여 있는 위치(position)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에 이른다.

> (세이난/칭난은 : 인용자)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자신을 무조건 본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찍어버리는 것 자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훌륭한 일본인'이라는 생각을 그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대로 믿어서 좋을 일이라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믿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왔고, 또한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왔다.(p. 318)

그러나 이제 세이난/칭난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과 허물없이 지냈던 가까운 동료와의 폭력 사건을 통해 본도인 출신의 자신은 결코 내지인 출신의 일본인들과 같은 '일본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의식적 층위에서' 인지하게 된다. 세이난/칭난은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이 아니고 또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늘 '일본인'이 아니라 '본도인'으로 호명되고 있었음을 여지없이 확인한 것이다. 차별과 폭언에 노출될 때마다 '흥분하지 말자', '냉정해지자', '미친 말벌에게 쏘인 셈치고 체념'하면서 자각을 지연시켜왔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자 "지금까지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않았던 과거 일본인들의 갖가지 행동들이 오히려 반대로 용서할 수 없는 불쾌한 일들처럼 전혀 다"(p. 316)른 기억으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그는 다케다가 사람들을 뿌리치며 맹렬하게 달려들기 전에도 이미 이 사실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부당한 처우를 따져 물으며 목소리를 돋우어 대거리를 하거나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똑같이 맞받아쳐서는 "왜" 안 되는지(혹은 "왜" 맞받아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자각하기 전에 이미 그의 신체는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었다. 작품에서 주인공 세이난/칭난의 나이는 서른셋이다. 세이난/칭난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일본 제국의 '국민'이었으며, '국어(일본어)'로 정규의 교육과정을 마친 세대이다. 그의 삶에서 일본인이 아니었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가 내지인 출신의 일본인과 같은 '일본인'이었던 적 역시 단 한 번도 없었다. 일시동인(一視同人)은 구호로 겉돌고 있을 뿐이었다. 세이난/칭난은 단지 히로다 계장을 비롯한 몇몇 내지인들의 호의와, 내지인들에게 걸핏하면 바카야로(馬鹿夜郎), 바카라는 욕을 먹거나 주먹질을 당하는 본도인 일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냄으로써 사태의 진면목과의 대면을 가까스로 연기(延期)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리화루의 사내에게 세이난/칭난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며 공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우악스럽게 덤벼드는 사내의 다부진 체격에 대한 공포가 아니다.[14] 자신이 '일본인'이 아님을 목도하게 될 순간에 대한 공포이며, '일본인'이 아닌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제지하거나 제대로 신원(伸寃)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는 불안한 자기 위치에 대한 공포이다. 그동안 세이난/칭난은 자신이 '일본인'임을 믿고 싶어 하는 내적 욕망과 자신을 본도인으로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메우는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이 단절과 분열을 메우는 작업은 매번 불모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세이난/칭난의 간절한 바람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일본인'이라는 경계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험들은 마음속의 분노와 수치심을 끄집어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노와 수치심을 효과적으로 다독이고 추스르며 자각을 지연시키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해소되지 않은 분노와 수치심은 세이난/칭난에게 '싸늘한 눈빛'과 '궤변'을 가져다주었다. 자각을 두려워하는 공포는 그에게 분명 고분고분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르쳐주었지만, 그와 함께 단절을 부정할 수 없는 경험들이 야기하는 분노와 수치심은 '싸늘한 눈빛'과 '궤변'을 통해 그 존재를 주장하고 있었다. 아래는 리화루에서 만난 사내가 헤어지기 전에 세이난/칭난에게 하는 충고이다.

"자네 말이야, 언젠가 한번은 누구한테든 되게 한번 맞을 거야. 이

14) 물론 근대 담론 안에서 '건강'·'건전'·'명랑'이 어떻게 식민자들에 의해 전유되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작품 안에서 내지인 출신의 일본인들만을 수식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충분히 의미심장하다.

> 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 오만하고 불손하고 제멋대로고,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아 맞다. 자네의 그 눈빛! …… 멍해 보이기도 하고 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양을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반항적인 것 같기도 하고 …… 어쨌든 하도 복잡하고 미묘해서 한마디로 뭐라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싸늘한 눈빛만큼은 사람을 자극해. 조심해야 될 거야!" (p.287)

세이난/칭난의 고분고분하고 예의바른 태도와 '싸늘한 눈빛' 사이의 낙차는 내지인들을 자극한다. 식민 정책과 식민 교육의 성공적 결과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내지인인 세이난/칭난이 보이는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은 내지인들에게 불안감을 던져준다. '일본인'이고 싶고 반드시 '일본인'이어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일본인'이 될 수 없다는 - 식민 담론이 갖는 이 이중 억압 기제의 모순성이 바로 세이난/칭난의 "해독할 수 없는" 언어("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싸늘한 눈빛)를 통해 지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민 논리에 의해 잘 훈육되었다고 여겨지는 자에게서 파악 불가능한 지점을 발견하면서 식민담론을 생산하고 유통시킨 자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다. 다시 말해서, 가장 '낯익은' 자로부터 예상치도 못하게 '낯선' 세계를 엿보게 되는 것이다.[15] 세이난/칭난이 던지는 불온한 눈빛은 계속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며 사유하기를 강요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논리의 빈약성과 모순성을 확인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몰아붙인다. 그러므로 세이난/칭난을 향한 가학적인 폭력과 폭언은 인식적으로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신경질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

15)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5, pp. 48-53 참조

또 하나, 우리는 세이난/칭난의 궤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케다와 직장 동료들은 그를 방랑사인(放浪思人)이라 부른다. 그가 "생각하는 것이 아주 기발하고 말하는 것 또한 지나치게 궤변적"(p. 269)이기 때문이다. 한번은 세이난/칭난이 두 시간이나 공을 들였던 보고서에 잉크를 쏟은 일이 있었다. 그는 이 일을 가지고 중일전쟁에 대해 동료들이 너무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자신이 정신을 딴 데 팔게 된 것이므로 보고서에 쏟은 두 시간이 넘는 정력을 허비하게 만든 원인은 바로 중일전쟁이라는 둥, 잉크가 종이에 떨어져 종이가 얼룩이 졌든 종이가 잉크에 닿아서 종이에 얼룩이 졌든 매한가지로 종이의 불행이듯이, 중일전쟁이 일본이 중국과 싸우는 것이든 중국이 일본과 싸우는 것이든 중국의 불행이며,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아시아 민족 전체의 불행이라는 둥 궤변을 쏟아 놓는다. 세이난/칭난은 이처럼 자신만의 괴상한 논리를 가지고 논쟁을 장악하고 상대의 입을 다물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그저 그가 가지고 있는 괴벽스러운 성향에 얽힌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이난/칭난의 궤변은 식민 담론, 아시아 민족의 해방 전쟁이라는 당시의 괴상한 논리를 소모적으로 반복하며 되받아 쓰고 있다. 그의 신념에 찬 궤변은 식민 논리의 궤변을 데칼코마니처럼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의 공적 담론장을 장악하고 있던 이 논리들은 세이난/칭난의 입을 통해 반복적으로 소비되면서 오히려 그 알량함과 억지스러움을 드러내는 꼴이 되어버렸다. "미메시스와 미미크리(mimicry, 모방)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글쓰기, 표상작용의 양식이다. 표상작용의 양식은 역사의 기념비적 성격을 한계화시키고, 그 권력을 어떤 모델로 매우 단순하게 흉내내어 조롱한다. 즉 역사의 기념비성을 모방할 수 있게 되도록(그렇게 가정되도록) 그 기념비적 권력을 모조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모방은 "재현"하는 것이기보다는 반복하는 것이며,

그처럼 위신은 실추"[16]된다.

그러나 세이난/칭난의 신체가 담지했던 불모성과 단절의 징후들은 곧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가 내적 열망과 외적 시선 사이의 단절, 식민 논리의 모순성에 대한 자각을 외면해버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단절과 심연을 응시하는 대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환상기제를 찾는 방법을 택한다.

3. '일본정신'이라는 정신적 계보

- 나는 언젠가는 '일본인'이 될 수 있다 -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쇼와 15, 16년(1940, 41년)은 일본이 타이완을 식민 지배한 지 이미 40여 년을 넘은 시점으로, 식민 당국은 더 이상 식민자와 식민지인 혹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노골적인 위계 구조를 전면화하지 않았다. 대신에 제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구조를 강조하며 제국의 중심과 변두리라는 새로운 구도를 고안해내었는데, 여기에서 수직적 위계는 수평적인 거리차로 변형되었고 이를 통해 이동의 가능성이 막연히 환기되었다. 이 구심적 원환 구도는 중심으로 진입하고 싶어 하는 식민지인들의 욕망을 효과적으로 재생산하였다. 또한, 제국 아래에서 하나의 '국민'을 강조함으로써 '국민' 하부의 위계 - 일등 국민과 이등 국민 사이의 심연은 희미해질 수 있었다. 이등 국민은 자신들의 부족하고 열등한 부분을 극복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리고 '언젠가는' 일등 국민이 될 수 있으리라는, '일본인'이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스스로 '일본인'이라 믿으면서 애써 버티었던 시간이 무력하게

16) 호미 바바, 같은 책, p. 182

한순간에 부정되자, 세이난/칭난은 욕망과 불가능성 사이에 놓인 자기 정체성의 아포리아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세이난/칭난은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하였다. 그가 찾아낸 첫 번째 환상기제는 바로 '일본정신'이다. 아래는 세이난/칭난이 히로다 계장에게 하는 말이다.

> "우리는 일본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녀왔던 것이 아닌, 진짜 참된 일본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정신을 내지인들로부터 찾고 싶었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으로부터 배우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p. 329)

이어지는 세이난/칭난의 논리에 따르자면, 이때의 '일본정신'은 선천적인 일본인, 즉 내지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동의어가 아니다. 그는 내지인 중에서도 이 '일본정신'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내지인들이 사사건건 높다란 장벽을 치고서 '일본정신'을 독점하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세이난/칭난이 이해하는 '일본정신'은 무엇인가. 그는 '일본정신'을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정신, 곧 유사시에 천황의 방패가 되어 천황을 위해 망설임 없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존왕양이의 '일본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본도인이든 조선인이든 만주인이든 모두가 '일본인'이 될 수 있다고 강변한다. (pp. 328-333)

기왕의 폭력 사건들은 세이난/칭난에게 하나의 '국민'이라는 맥빠진 구호가 '민족' 차이라는 단절을 결코 메울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 주었다. 바꿔 말해서, <나는 '일본인'이다>라는 믿음이 곧 본도인 역시 야마토족(大和族)과 같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심연을 뛰어넘고 차이를 상쇄할 만한 새로운 공통분모로 '일본정신'을 찾아냄으

로써 여전히 <‘일본인’ 되기>를 멈추지 않는다.

세이난/칭난은 히로다 계장에게 ‘일본정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길게 밝히고 나서는, 본도인을 위해 ‘황민으로 가는 길(皇民への道)’을 써보겠다는 포부를 드러낸다. 그는 ‘일본정신’이 녹아있는 일본 민족의 생활형태, ‘천황신앙’과 ‘멸사봉공(滅私奉公)’이라는 일본 민족의 생활형태를 모방함으로써 비로소 황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이난/칭난이 “게으르고 불성실”(p.327)하다는 본도인의 본성을 버리고, 한창 전쟁 중인 국가의 ‘국민’으로서 제뇌 산업의 기술력 증진을 위해 애쓰는 등 ‘일본정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인한 사실은, 자신은 ‘일본인’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본도인이라는 점이었다.

> “이거 정말 유감이네만, 이번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인사 문제라는 게 워낙이 생각한 것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거라서 말이야. …… 게다가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고, 까닥하다간 괜히 말썽만 일으키기 십상일 것 같아!”(p. 344)

> “본도인이기 때문에 승진할 수 없는 건 아니네. 하지만 그동안 본도인은 일단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되면 별로 쓸모가 없었던 게 사실이었네. 자네는 본도인 중에서도 우수한 부류에 속하고 더욱이 평소에도 일본인의 좋은 점을 체득하려고 했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본도인은 00[17]이 아니야.”(p. 346)

집약제뇌중간시험(集約製腦中間試驗)의 예산안이 통과되어 기술자 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세이난/칭난의 승진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다. 그는 타이완 총독부 전매국 기수(技手)로 승진

17) 「道」의 역자주에 따르면, 원작에는 ‘人間’으로 되어 있는데 발표할 당시에는 ‘00’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하게 되면 5호봉의 봉급과 주택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승진한 사람은 다케다였다. 다케다는 3호봉을 받는 타이완 총독부 전매국 기사로 임명되었다. '일본정신'이라는 환상기제의 불능성은 이렇게 폭로되고 말았다. 피의 계보(혈통)를 대신하여 정신적 계보('일본정신')를 주장하며 단절을 극복해내려고 안간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격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세이난/칭난은 겨우 거의 '일본인'이 될 수 있을 뿐이었다.

모방은 식민 권력과 지식의 가장 교활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다. 식민 담론의 모방은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은' 차이의 주체로 하여금 원천적으로 욕망이 금지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열망하도록 강제한다. 여기에서 욕망의 대상 자체가 그 시작에서부터 이미 욕망을 금지하고 있음은 철저히 은폐된다. 오히려 강조되는 것은 욕망하는 자의 자격 미달, 미흡함, 부족함이다. 모방은 자체로 개명(개선)과 부적합(미달)을 동시적으로 지시한다. "모방의 담론은 양가성을 둘러싸고 구성된다. 모방은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미끄러짐・초과・차이를 생산해야 한다. … 즉, 모방은 그 자체가 부인(disavowal)의 과정인 차이의 표상화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모방은 이중적 분절의 기호이다."[18]

이 사건으로 인해 세이난/칭난은 심각한 신경쇠약에 시달린다. 계속해서 악몽을 꾸고 심지어 아무 때나 웃거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벽을 보고 중얼거리기까지 했다. 세이난/칭난은 출생과 함께 이미 일본 제국의 '국민'으로 편입되었던 세대이다. 그렇지만 그는 늘 부족한 '일본인', 이등 '국민'으로 규정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일본인'이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시달렸다. '일본인'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은 '일본인'과 자신 사이의 단절을

18) 호미 바바, 같은 책, p. 179

강조하는 동시에,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열망을 부추겼다. 그러므로 '일본인'이 되어야만 하는 당위적 상황에서 '일본인'이 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은 세이난/칭난을 절망으로 몰아갔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이제는 완전히 탈진해 버렸다. 자기 자신을 상실한 삶을 참고 견디어낼 힘이 없어서는 결코 아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여 가며 그 상실감을 인내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p. 356)었다. 세이난/칭난은 욕망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욕망함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음을 어렴풋이 감지하였다.

① **완전한** '일본인'이 되어야만 사람처럼 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거의 '일본인'이다, 지금 나는 '일본인'과 **거의 다를 바 없다**

⇑⇓

② 그런데 거의 같지만 **똑같지는 않다**

세이난/칭난은 ①과 ② 사이를 무한 반복한다. '거의',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수식은 그의 욕망을 계속해서 재생산해내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일본인'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은 세이난/칭난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희망은,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은 그 작은 차이란 것이 신념으로도, 정신적 계보를 통해서도 결코 극복되거나 메워질 수 없는 절대적인 지점이라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은폐했다. 그러므로 세이난/칭난은 자신도 훌륭한 '일본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본인의 생활태도를 모방하고 성실하게 산업 역군으로서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은 결실을 맺은 듯 보이는 순간에 여지없이 굴러 떨어지는 '시지푸스의 돌덩이'가 되어 되돌아왔다. 욕망의 '불가피함'은

욕망 실현의 '불가능성'을 확인해 줄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세이난/칭난의 곤경이며, 그가 발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그런데 세이난/칭난의 절망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엉뚱하게 다시 희망으로 둔갑해버린다. 그가 신경쇠약으로 고생한 지 4개월여 정도 지난 어느 아침이었다. 그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왼쪽 팔뚝을 기어 다니는 빈대 한 마리를 발견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빈대를 불에 태우면서, 세이난/칭난이 떠올린 것은 "이가 많으면 가렵지 않고 빚이 많으면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본도어로 된 본도어 속담이었다. 세이난/칭난의 곤혹스러움은 무심코 떠오른 본도어 속담으로 인해 자기반성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 그는 자신이 혼자서 생각할 때나 속으로 숫자를 셀 때처럼 종종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어'가 아니라 본도어로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음을 떠올렸다. 이는 그가 <이제는 완전한 '일본인'이 될 만하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한낱 착각에 불과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세이난/칭난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자기 내부의 불충분함·불완전함 때문으로 결론 내려진다. 그가 놓인 부조리한 상황이나 식민 담론의 모순적인 이중기제는 자취를 감춰버린다. 욕망 자체나, 욕망이 작동되고 금지되는 기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지 않는다. 오로지 욕망자의 결핍, 미달만이 남는다. 그러므로 라플랑쉬와 퐁탈리(J. Laplanche · J. B. Pontalis)가 "식민지인의 욕망은 자기혐오 같은 가장 원초적인 방어적 반응을 위한 가장 적당한 지점이다"[19]라고 설명한 것은 매우 정확하다.

개인 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의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는,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인준을 하는

19) J. Laplanche · J. B. Pontalis, "Phantasy(or fantasy)", translated by Donald Nicholson-Smith ; with an introd. by Daniel Lagache, *The Language of Psycho-analysis*, New York : Norton, 1974, p. 318

한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경증 환자는 우월과 열등, 상위와 하위라고 하는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지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자기평가에 집착한 나머지 항상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프란츠 파농은 이러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마르티니크 사회를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마르티니크 사회 전체가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하는 신경증 사회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파농은 식민지 사회 전체가 왜 신경증에 걸렸는가를 설명하면서, 유럽 백인과의 조우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백인 식민자에 의해 한순간에 사회 전체가 열등하다고 규정되면서,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의 열등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교-신경증적인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인들이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등감에 대한 저항이 신경증적인 행동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파농은 우리에게 마르티니크인들의 신경증적 행동에 있어서 "그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자는 백인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자기 동료"[20]로 제한된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주문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아들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신경증 환자의 자기 인준과 식민지인들의 자기 인준이 변별되는 지점이라고 주장하는데, 식민지인의 자기 인준에는 '제국 식민자'가 바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대타자로서 개입한다는 것이다.

백인 식민자
자아 > 타자

"이것이 소위 허구적 지배인데, 이 허구적 지배는 개인적인 것

20) 프란츠 파농, 이석호 역, 「7장 흑인과 인정투쟁」,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p. 270

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21] 백인 식민자는 궁극적 목표물이자 동경의 대상이지 절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식민지인들의 의문은 항상 동일하다. 같은 처지의 식민지인을 상대로 저자가 나보다 더 똑똑한지 아닌지, 나보다 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나보다 더 검은지 아닌지, 나보다 더 불어를 잘하는지 아닌지 등등. 파농의 분석틀은 (마르티니크인들의) 백인 식민자를 일본인 식민자로 바꾸었을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

「道」에는 본도인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세이난/칭난을 리화루로 데리고 간 전매청 푸리 사무소 직원 두 명, 세이난/칭난의 부인, 옆방 부인 정도가 본도인으로 짐작될 뿐인데, 그들 모두 발화가 허락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존재 자체도 매우 부수적이다. 한편, 세이난/칭난은 "내지인들이 입만 열면 (본도인들을 향해 : 인용자) '바카야로(馬鹿夜郎)', '바카'라고 욕을 해대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해왔지만, "지금껏 자신이 직접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p. 314) 정도로 본도인과의 '비교'에서 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인물이다. 또,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욕망에 감히 의문을 품지도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이지만 허구적인 대타자('일본인')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자기 자신을 검열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직도 충분히 '일본화'되지 않았다는 자학적인 진단에 도달하면서, 욕망 실현의 가능성이 이미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진실을 외면해버린다. 즉, '아직은'이라는 시간 부사어가 삽입됨으로써 <'일본인'과 거의 다를 바 없다>와 <'일본인'과 거의 같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사이의 절대적인 단절은 막연한 희망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희미해진다.

---

21) 프란츠 파농, 같은 책, p. 271

4. 聖戰을 통한 새로운 피의 수혈

- 나는 죽어서 '일본인'이 될 수 있다 -

세이난/칭난은 작은 빈대 한 마리로 인해 크게 돈오한(?) 이후 점차 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해간다. 평온하게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 그 편지의 발신자는 리화루에서 만난 바로 그 사내(미야자키 다케오, 宮崎武夫)였다. 사내는 세이난/칭난과의 조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징집되었고, 전장에서 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징집되어 갔지만 자신만은 아직도 징집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술에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던 사내의 바람은 이루어진 셈이었다. 한편, 이 즈음 세이난/칭난이 사내에게 털어놓았던 시름 역시 해소될 조짐을 보인다. 쇼와 17년(1942년) 4월, 타이완에서도 조선(1938년부터 시행)과 마찬가지로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본도인은 징병하지 않는다'는 총독부의 방침은 본도인을 대상으로 지원병을 모집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였고, 세이난/칭난은 완전한 '국민'으로 호명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맞닥뜨린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전일본산업기술전사표창식(全日本産業技術戰士顯彰大會)에서 타이완의 기술 전사로 뽑혀 표창장과 훈장을 받았다. 제뇌산업기술력 증진에서의 노력과 결실이 상당하는 보상과 인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세이난/칭난은 건방지고 다루기 까다로운 '본도인'이다>라는 동료들의 시선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 "우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은 자의식의 과잉, 반성의 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스스로 마음의 벽을 쌓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좀 더 솔직해질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

에는 예를 들어 '내 비록 일본국의 국민이라 생각했지만'이라든지 '도인(島人)인 나'라는 표현 같은 거는 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황민으로서의 나'라고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p. 372 : 강조 인용자)

위는 세이난/칭난이 1942년 2월 2일 타이완육군특별지원병에 지원하고 나서 감격하여 지은 시를 두고 동료인 치즈키메(稚月女)가 꺼낸 말이다. 과거에 중일전쟁에 대해 토론하면서, 세이난/칭난을 향해 "이봐! 그렇게 성실한 척 하는 것도 좀 정도껏 하시지 그래! 왜 '지나'에 관한 이야기라서 자네 귀가 따가워서 그러나?"(p. 322) 하며 비아냥거리던 다른 동료들의 시선과는 사뭇 다르다. 이들 동료들에게 세이난/칭난은 10여 년간의 행실이나 업적과는 상관없이 그저 '본도인'이고 '지나인'이다. 그렇다면 그는 곧 적국의 사람인 셈이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본도인'인 세이난/칭난은 믿을 수 없는 '일본인', 잠재적인 배신자, 아직 발각되지 않은 첩자라는 혐의를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치즈키메의 시선에서는, 자신은 '일본인'이며, '황민'이라는 사실을 믿기 주저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이난/칭난 자신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의 자학적인 반성은 <반드시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와 <무엇을 통해서도 절대 '일본인'이 될 수 없다>는 아포리아적인 이중 억압의 굴레와 거듭 대면하면서, '일본인'이라는 믿음, '일본정신'의 계승 모두 도약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세이난/칭난은 <거의 다를 바 없다>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사이에 '아직은'을 집어넣음으로써 모든 원인을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으로 귀결시키고 욕망 행위를 계속 유지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럼으로써 욕망이 놓여 있는 이중 억압의 모순적인 작동 기제 역시 온전히 수호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일본인을 '일본인'으로 완성시켜주는 '피(혈통)'의 배타적인 차이를 결코 넘어서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음은 그가 육군특별지원병에 지원한 후 썼다는 바로 그 시의 일부이다.

> 내 비록 일본국의 국민이라 생각했지만
> 슬프도다, 그 천생의 피는 지니지 못했구나!
> (…)
> 지금 우리는 성상(聖上)을 위한 방패가 되어
> 용감하게 전장에서 죽으리라!
> (…)
> 다만 이후에라도 황민(皇民)이 되고 싶을 뿐이다!(p. 370)

그는 육군특별지원병을 입에 올리면서 반복적으로 '죽음'을 상기한다. 이때의 '죽음'은 단순히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서' 천황의 방패가 되겠다는 결의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마치 '죽음'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죽음'이 바로 욕망의 불가피성과 욕망 실현의 불가능성을 가로지를 수 있는 선결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인' 되기>라는 욕망 자체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세이난/칭난은 이중 억압의 아포리아에 갇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의 치열한 고민의 시발점은 왜 <'일본인' 되기>를 욕망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본인' 되기>를 달성할 수 있는가이다. 그에게 '왜'라는 의문은 이미 현실 논리에 함몰되어 버린 상태이다. 따라서 <'일본인' 되기>는 궁극적 목표로 확고히 자리를 유지한 채, 오로지 단절을 메우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만이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이라는 신념, '일본정신'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세이난/칭난은 끈질기게 인정하기를 거부해왔던 사실과 대면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환상기제(신념, 정신 등)를 동원한 자기기만을 그치는 동시에 '일본인'을 완성시켜주는 유일한 조건으로서 '타고난 피(혈통)'의 존재를

인정한다.

> "(…) 이것이 바로 소위 국가를 위해 자신의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만 가지고는 본도인은 황민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목표를 향해, 동일한 적들에 대항해 본도인과 내지인이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피를 흘리지 않으면 황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 "……."
>
> "그렇습니다. **함께 피를 흘리지 않으면 황민이 될 수 없습니다."** (p. 375 : 밑줄・강조 인용자)

여기에서 세이난/칭난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함께 피를 흘리지 않으면 황민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일본인'이며 '황민'임을 증명해보이겠다는 의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본도인'의 피를 완전히 새롭게 갈아치우기 위해 죽음을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聖戰)에서의 죽음은 정화(淨化)를 위한 통과의례에 해당한다. 동양의 문학작품에서는 '죽음'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이나 해탈을 위한 과정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서 '죽음'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자기해체를 시도함으로써 자기완성에 도달하고자 하는 구도(求道)의 행위가 된다.

세이난/칭난은 동양문학의 이러한 전통을 자신의 <'일본인' 되기> 안에서 천박한 수준으로 모방했다. 작품에서 주인공은 일본의 고승(高僧) 바쇼의 불교적 색채를 띤 하이쿠, 하이카이(俳諧)에 매료되어 있는 인물이며, 심지어 자신을 "구도자"[22]로 언급하기도

22) 그는 진정성이 없는 인간의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진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며 구도자로서의 자신의

한다. 세이난/칭난에게 죽음은 단지 삶의 대립점에 놓인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완성과 도달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그러므로 세이난/칭난은 '일본인'(=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해 '일본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성전에서 기꺼이 죽기를 열망할 수 있는 것이다.

세이난/칭난은 살아서는 결코 '일본인'이 될 수 없다. 죽음을 통해 '본도인'의 피를 다 쏟아내고 나서야 새로운 피의 수혈이 가능하고, 비로소 '일본인'으로 호명될 수 있다. 피의 정화가 이루어진 후에야 욕망은 실현된다. 따라서 오로지 그의 묘비명만이 세이난/칭난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

> "(…) 만약 전쟁에서 죽으면 제 묘지명에 이렇게 새겨주세요. '세이난/칭난 거사(居士) 타이완에서 태어나 타이완에서 자라 일본 국민으로 죽었다.' 아니면 '세이난/칭난 거사 일본 신민(臣民)이 되다. (…)" (p. 378)

소설은 세이난/칭난이 실제로 육군특별지원병에 선발되었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일본인' 되기>를 멈출 의사가 없다는 점만은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여기가 "공리(空理)"를 의심하지 않았던 식민지인의 자기 정체성을 위한 투쟁이 비참함을 벗어날 수 없는 지점이다. <'일본인' 되기>는 궁극적 목표물로 요지부동한 채 감히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욕망의 불가피성과 욕망 실현의 불가능성이라는 이중 억압의 기제가 폭로되는 순간에도 그는 눈을 질끈 감아야 한다. 그리고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그쳐서는 안 된다. 설령 그것이 죽음을 요구하더라도 계속해야 한다.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러지 않고 단절의 심연을 응시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미치는

자세는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고 믿었다.(p. 322)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세이난/칭난의 <‘일본인’ 되기>를 위한 시도와 실패의 반복되는 여정을 예의주시하였다. 세이난/칭난은 출생과 함께 일본 제국의 국민으로 편입된 세대이다. 그의 삶에서 일본인이 아니었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가 내지인 출신의 일본인과 같은 ‘일본인’이었던 적 역시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늘 이등 국민, 불완전한 ‘일본인’으로 내지 출신의 ‘일본인’과는 분명히 구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난/칭난은 <‘일본인’=국민=사람>이라는 공식 위에 안착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종쨔오쩡, 츄위즈 같은 비평가들이 「道」에 대해 황민화에 저항하는 타이완인의 심리적 투쟁의 기록이라고 평가한 데에는 분명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소설은 왜 ‘일본인’만이 국민이고 사람인 것인지 따져 묻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을 생략하면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이 “공리(空理)”를 회의하는 순간 저항의 지점들이 드러난다. <‘일본인’=국민=사람>이라는 “공리(空理)” 자체를 의심하지 않으면, 욕망의 불가피성과 불가능성 사이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타루미 치에의 해석처럼 「道」는 처음부터 저항의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던 듯하다.

그래서 필자는 이 소설을 황민화에 반응하는 타이완인의 심리적 투쟁의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道」는 전제에 대한 반성 없이, 주어진 현실 논리에 부합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며 고민했던 한 식민지인의 처절한 기록이다. 주인공은 매번 자신의 시도와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절대 이룰 수 없는 욕망임을 확인하는 순간

에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의 투쟁이 안타깝고 일견 동정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공리(空理)”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성찰을 경유한 저항의 움직임과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주인공은 사태의 진면목을 올바르게 통찰하고 파악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줄곧 자기기만과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 작품의 화자 역시 주인공이 식민지라는 비극적 시공간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발버둥 쳤는지를 보여주는 데만 거의 대부분을 할애할 뿐, 그 발버둥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왜 그 방향이 옳은 것인지, 발버둥 자체를 중지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살기 위한 몸부림을 그대로 저항과 동의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道」는 친일적인 작품은 아니더라도, 황민화에 대해서는 현실 추수(追隨)적인, 분명 무비판적인 작품이다.

한편, 필자는 본고를 통해 식민주의에의 협력과 저항 사이의 근사(近似)한 관계망을 복원하고자 했다. 대개 우리는 순진하게도 ‘친일적’ 행위를 강압에 못 이긴 수동적 행위로 처리하거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양심을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로만 치부한다. 다시 말해서 억압과 저항의 관계망에서 특수하게 일탈된 행위로 취급하여 역사의 외부로 축출해버린다. 그런데 어쩌면 이는 친일적 행위를 우연적이고 일회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봉합해버리는 작업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업은 친일적 행위가 특정 개개인들의 판단 착오가 빚어낸 과오이며, 앞으로 반복하여 재연될 가능성 또한 희박함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단 착오의 가능성은 모두가 가지고 있으며 전제를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정은 언제라도 현실 논리에 함몰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바로 친일 문학이라고 부르는 작품들이 갖는 현재성이다.

참고문헌

① 국내 단행본

천훠취엔, 「道」, 송승석 편역, 『식민주의, 저항에서 협력으로』, 도서출판 역락, 2006.
프란츠 파농, 이석호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5.

② 국내 논문

구수경, 「『죽음의 한 연구』에 대한 신화비평적 고찰 - 죽음과 재생의 원형적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9.
유기륭, 「한국현대소설작품에 나타난 원형에 관한 연구 - 특히 <죽음과 재생>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 『어문학』 42, 한국어문학회, 1982. 5.

③ 국외 단행본

葉石濤, 『臺灣文學史綱』, 文學界雜誌社, 1987.
陳少廷, 『臺灣新文學運動簡史』, 聯經出版社, 1977.
J. Laplanche · J. B. Pontalis, translated by Donald Nicholson Smith, *The Language of Psycho-analysis*, New York: Norton, 1974.

④ 국외 논문

褚昱志, 「是皇民文學? 還是抗議文學(二) - 論陳火泉的<道>」, 『臺灣觀光學報』 5, 2008.
陳火泉, 「被壓迫靈魂的昇華」, 『抗戰時期文學回憶錄』, 文訊月刊雜誌社, 1987.

張恒豪・林梵・羊子喬, 鍾肇政・葉石濤 編, 「出版宗旨及編輯体例」, 『光夏前台湾文學集』, 小說卷全八卷, 1979.
鍾肇政, 「日據時代臺灣文學的盲點-對『皇民文學』的一個考察」, 『聯合報』, 1979, 6.
垂水千惠, 「日本統治と皇民文學-陳火泉の場合」, 『台湾の日本語文學』, 五柳書院, 1995
廖秀娟, 「陳化泉「道」論-語りらみる作品の<批判性>」, 『台湾日本語文學報』, 25, 2009. 6.

Identity Struggles of the Colonized in Taiwanese Novel *The Way*

Shin, Min-Young

Chen Huoquan, a Taiwanese writer, published his novella *The Way* in Literary Taiwan in July 1943. This work includes some aspects which cannot be explained under a binary opposition between resistance and collaboration. The protagonist of *The Way*, a native of Taiwan, is from a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Although, his generation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nation of the Empire of Japan," he tragically suffers from an era of the hierarchy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nation concealed in the slogan of "a nation." He struggles to become the first nation or perfect "Japanese" but only to fail all the time, because the mechanism of double oppression simultaneously forced him to become "Japanese" but also kept him from fulfilling the task of becoming "Japanese." Although Seinan/Chingnan frequently suspects an aporia between inevitability and impossibility of desire, he turns it away and chooses self-deception indulging in finding a fantasy mechanism to leap over the gap. The mechanism that he found consists of "the Japanese spirit" or a strong belief of being a "Japanese", but he always fails to leap. Finally, he shows an attitude of yearning for death as a way of pouring out "Taiwanese" blood and receiving a transfusion of new blood.

This certainly is a tragedy imposed by circumstances of the time under striving Seinan/Chingnan in vain. However, the protagonist chooses to accept the logic of reality given to him without critically reflecting on or being skeptical about an important premise, an "axiom" of "Japanese=nation=man" *The Way* does not question about why only "Japanese" is a nation and a man; there is no choice if this question is omitted. However, aspects of resistance appear at the moment of suspecting this "axiom". If there is no question about premises, our decisions are prone to sink into the logic of reality; so-called pro Japanese literature sternly warns against this fact. And this kind of warning serves as

a contemporariness that pro-Japanese literature has.

Key words: pro-Japanese literature, *The Way*, identity of the colonized, The Japanese spirit, policy of the special army volunteer soldier

신민영
소속: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비교문학협동과정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외솔관 610호
전화번호: 010-7613-9879
전자우편: idomybest-fkl@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0일 투고하여
2013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31일 게재 확정함.